

국어 존재 구문 연구

-17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안 병 한*

<차 례>

I. 서 론

III. 결 론

II. 사건 서술의 층위

I. 서 론

이 논문은 '17세기 국어 구문 연구'의 한 시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국어의 문장은 서술어¹⁾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동사구의 의미 자질은 문구성에 핵심적인 기능을 하며, 동사구의 의미적인 특성에 따라 구문의 구성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우리가 동사구를 기준으로 구문을 검토하는 것은 구문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17세기 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까닭은 물론 근대국어 구문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변하고 그 문헌자료가 한계성을 지니니 국어 구문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그것을 역사적으로나 시대별로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15세기의 존재구문에 대한 연구는 이현희(1994:141~170)에서 자세하게 이루어졌는데 이는 이 시대 문헌 자료가 한계성을 지니고 있는 바와 같이 주로 불경언해본을 대상 자료로 하였다. 16세기의 존재구문에 관한 연구도 韓在永(1996:151~182)에서 격표지를 중심으로 존재구문의 유형을 정리하였다. 이들 두 연구는 '있-', '없-',

* 영남대 강사

1) 이 다음부터는 서술어를 동사구라고 부르기로 한다. 동사구란 동사 형용사 지정사 등 에 의해서 구성된 서술어만을 가리키며 부사어 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시-’를 대상으로 각각 ‘存在構文과 所有構文’, ‘존재·소유동사구문’으로 이름하여 존재구문을 다루었는데, 크게 보아 구문의 구조적 특성상 ‘있-’과 ‘없-’은 같은 범주에 들지만 그 의미 자질의 대립적인 면에서 두 구문의 차별성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그리고 국어 문장 전체를 동사구를 중심으로 문형을 분류할 때, 존재의 의미자질과 作爲의 의미자질을 공유하는 ‘살-’, ‘머물-’구문도 별도의 구문 유형으로 분류하기 어려우므로 존재구문에 포함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위의 두 저서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17세기에 와서는 홍윤표(1993), 홍윤표(1994),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5) 등이 나와 근대국어 연구에 활력을 갖게 되었으며, 국어 구문연구에 대한 밑절미가 되어 주었다. 현대국어에서는 ‘풀이말 “있/계시(다)”에 대하여’(서정수:1991)에서 ‘있-’과 ‘계시-’가 동사성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며 형용사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환경에 따라 동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근대 국어에 대해서는 구문연구가 되어 있지 않으니 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위에서와 같은 앞선 연구들에 힘입어 아래의 문헌자료들에서 용례를 뽑아 정리한다.

약호	문헌명	간행연도
家禮	家禮諺解	1632
家禮圖	家禮諺解 家禮圖	
警民重	警民篇諺解(奎章閣本)	1658
觀念	觀念要錄	1637
救荒	新刊救荒撮要	1639
丙子	丙子日記	1640
老乞	老乞大諺解	1670
東新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東新三烈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三綱烈女圖	
東新三忠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三綱忠臣圖	
東新三孝	東國新續三綱行實圖 三綱孝子圖	
東新續烈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續三綱烈女圖	
東新續忠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續三綱忠臣圖	
東新續孝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續三綱孝子圖	
東新烈	東國新續三綱行實圖 烈女圖	
東新忠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忠臣圖	
東新孝	東國新續三綱行實圖 孝子圖	
東醫	東醫寶鑑	1613
痘瘡	諺解痘瘡集要	1608
馬經	馬經抄集諺解	1682
朴通	朴通事諺解	1677

辟溫	辟溫新方	1653
補遺方	救荒補遺方	1686
語錄初	語錄解 初刊本	1657
語錄重	語錄解 重刊本	1669
女訓	女訓諺解	17세기초
譚語	譚語類解	1690
練兵	練兵指南	1612
焰硝	新傳煮取焰硝方諺解	1635
煮硝	新傳煮硝方諺解	1698
捷解初	捷解新語 初刊本	1676
七類	類合(七長寺版)	1664
七千	千字文(七長寺版)	1661
胎産	諺解胎産集要	1608
火砲	火砲式諺解	1635

그리고 연구방법은 동사구에 의해 표현되는 구문의 유형을 모두 찾아, 구문 속에서 이들 동사구를 중심으로 이끌어 나타나는 논항의 수와 어순을 고려하여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 자체의 정신세계를 주로 언어를 써서 표현하며 이 언어는 문장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고 국어 문장의 중심은 동사구이다. 그러니 동사가 갖는 의미의 특성에 따라 문형을 분류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 세계를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의 총체적 구조체인 기본문형을 밝히기 위한 기초 작업이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동사구는 논항의 수를 결정하는 것으로 동사구 내에서의 주동사를 말한다.²⁾

존재구문은 우리 정신세계의 한 부분인 존재(在, 有)의 의미를 가진 동사가 구성하는 문형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동사는 ‘이시-’, ‘잇-’, ‘없-’, ‘살-’, ‘머물-’, ‘계시-’등이다. 이들이 각각 표현하고 있는 구문의 용례를 모두 찾아 정리함으로써 존재구문의 유형을 규명하고자 한다.

II. 존재동사 구문의 특성

2.1 ‘잇-’구문

‘잇-’은 ‘이시-’와 ‘시-’로도 쓰인다.

‘잇-’은 예문 (1)ㄱ, 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음으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나타나고,

2) 논항은 본동사와만 관계하며 조동사와는 무관하다. 손세모돌(1996:48~52)에서도 보조용언이 논항과 무관함을 말하고 있다.

‘이시-’는 매개 모음을 비롯한 모음어미 앞에서 나타나는데(예문(1)ㅁ, ㅂ; ㄷ, ㄹ),이 때 드물게 ‘시-’ 3)로도 나타난다(예문(1)ㅅ, ㅇ).

- (1) ㄱ. 분墓 | 平地에 잇거든(가례8:14b)
 ㄴ. 지아비와 쓰리 다 불 가운데 잇거늘(동신호4:47b)
 ㄷ. 나갈 재 고향며 도라와 面하는 體 이시니(가례2:11a)
 ㄹ. 문득 잠승이 이서(동신호1:12b)
 ㅁ. 혼 므울히 한가지로 이쇼터(동신열3:79b)
 ㅂ. 쏘 혼 님은 父 | 이쇼매 父 | 主 | 되미라(가례7:4a)
 ㅅ. 아드리 서면 나를 고향여 태후를 봉호단 마리라(여훈하:13b)
 ㅇ. 두 분 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 실가(경민중:38a)

음운론적인 면이나 형태론적인 면에 대한 논의는 본 논문의 목적하는 범위에서 벗어나니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하고, 본고의 주제로 돌아가 ‘잇-’의 구문론적인 면인 구문구조 및 구문유형을 살피기로 한다.

(2) [NP₁이 잇-] 구문

아래 ㄱ, ㄴ, ㄹ의 예문들은 접속문으로 존재구문이 선행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문장이 있는 경우인데, 후행문에서 선행문의 청자가 알고 있어야 할 상황(곳, 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선행 존재문에서는 존재 장소가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아도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구문이며, ㄷ의 예문에서도 선행문 ‘жат술 무덤 압피 심 견더니’에서 다음에 이어지는 존재구문 ‘돌터 이서’에 필요로 하는 정보가 ‘무덤 압피’임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위의 ㄱ, ㄴ, ㄷ, ㄹ 예문들은 [NP₁이 NP₃에 잇-]에서 존재의 곳인 [NP₃에]가 접속복합문의 형성 과정에서 생략된 문형이다. 그러나 예문 ㅁ은 ‘地獄’이 있어야 할 곳을 특별히 의식적으로 표현할 필요성을 갖지 않거나 못하는 세계를 표현한 문장이다. 이는, 우리가 생존하는데 공기가 절대적으로 존재함을 공인하지만

3) 15세기에는 ‘잇-’과 ‘시-’가 쌍형으로 존재했는데, ‘시-’는 이 시기에 거의 소실기에 들어섰다(이승녕:1976)고 주장했다. 그런데 17세기에도 본문의 예문 (1)ㅅ,ㅇ 이 외에 ‘너고하며 텨아선을 부러든 총통 시는 수되는 머머려 서고(연병하:13b)’, ‘도즈기 머러 신 제란 총통을 노코(연병:1 b)’ 등의 예문이 보이니 이 ‘시-’가 실제로 구어에서는 문헌자료에서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쓰였을 수도 있다. 현대 국어에서 서술형 종결어미로만 쓰이는 ‘-다’가 19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경북 방언에서 의문형 종결어미로도 쓰이는 것(보기:진(眞)다?)을 볼 수 있었지만 문헌어에서는 전혀 볼 수 없었다. 다양한 언어 사실이 문헌 자료에서는 아주 빈약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특별히 우리가 그것을 표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못할 때에는 그냥 잊고 지내는 것과 같은 경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있게된 원인에는 ‘地獄’이란 명사의 뜻이 그 속에 곳(장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서 곳(地獄)이 있는 곳을 의식적으로 표현하자면 그것을 주제화 해야 하고 그렇게 하자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니 뒤에 표현되는 곳의 논항을 생략하여 노력의 경제성을 높인 결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17세기에 존재구문으로 [NP₁이 잊-]구문이 하나의 문형으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ㄱ. 범이 이셔 그 지아비를 더위여놀(동신열2:1)
- ㄴ. 불강되 이셔 지비 드라드니(동신열2:79)
- ㄷ. 잣술 무덤 압피 심건더니 돌터 이셔 다덜러 이우니 스성이 통곡호더니(동시효 1:71)
- ㄹ. 조고만 아히 이셔 밭양 밭몰 알거늘(동신효1:1)
- ㅁ. 地獄이 업슨덴 팔려니와 이시면 사오나온 사람이 들리라 하니(경민중:36a)

(3) [NP₁이 NP₃에 잊-]⁴⁾

이 구문은 어떤 대상(=실체, 주체)이 어느 곳이나 사람에게 있음을 나타내며 가장 흔하게 쓰인 구문이다. 존재구문이라고 말할 때 일반적으로 이 구문을 일컫는다. 이 시기에도 사람들은 어떤 사물(대상)이 있다(존재한다)면 그것이 있는 곳만 의식하고 그것이 존재하는 때는 의식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아래에 예문 ㄱ, ㄴ, ㄷ에서 볼 수 있다.

- ㄱ. 그 어미 방 안히 이셔 나디 못호엿 쯔놀(동신효6:48b)
- ㄴ. 내 村에 이셔 배 닉고 게 술지고 고기 정히 아롭다오며(박통:43b)
- ㄷ. 갑슨 네게 잊고 物은 내손더 이시니(박통중:57b)

4) 약호의 쓰임은 다음과 같다. NP는 명사구, 아랫첨자 1은 주격‘-이’, 2는 목적격‘-을’, 3은 처격(곳, 때)‘-에’, 4는 구격이나 방향격‘-로’의 자리에 각각 표시되며 이들이 이중으로 표현될 때에는 그 아랫첨자를 겹으로 표기한다. 예를 들면 이중 주어 구문일 때에는 [NP₁이 NP₁₁이 잊-]과 같이 표기한다.

여기서 동사구와 명사구와의 관계는 동일 구문 속의 동사구에 의해 명사구가 이끌리는 기능적 체계를 말한다. 그리고 각 격의 의미를 명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격표지 뒤의 ()에 표시하기로 한다. 국어의 격체계에 대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이는 허웅(1983:187~188)이 있다.

(4) [NP₃에 NP₁이 있-]

이 구문은 (3)의 문형에서 곳(=처소, 상황, 사람 등)을 표시하는 ‘NP에’를 문장의 앞부분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예문 ㄱ의 ‘ㅁ을히’와, ㄴ의 ‘절벽 아래’는 둘 다 곳을, ㄷ의 ‘내게’는 유정물을 대상으로 하는 곳(처소)을 강조하여 나타내고, ㄹ의 ‘判事네피’는 判事라는 사람 즉 유정의 곳(처소)을 대접하여 강조함을 나타낸다. 국어가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언어라고 할 때 구문(4)는 구문(3)과 같은 유의 문형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들 두 구문이 주격과 처격의 위치가 바뀌어 어순의 차이로 말미암아 서로 구분되지만, 이들은 문장의 기본 개념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문장 개념의 정도의 차이만 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ㄱ. ㅁ을히 모딘 저믄 노미 이서(동신열2:45b)
 ㄴ. 절벽 아래 머래 덩울이 이서 죽디 아나를 어드니라(동신열1:11b)
 ㄷ. 내게 明緣 빗착 비단이 이시니(박통상:43a)
 ㄹ. 判事네피 마디못홀 미드려 호는 일이 이서(참해초5:21a)

(5) [NP₁이 NP₃에 NP₃₃에 있-]

이 구문은 곳을 나타내는 명사구가 두 번 쓰이고 있다. 예문 ㄱ, ㄴ, ㄷ은 그러한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문 ㄱ에서 곳을 나타내는 앞의 명사구 ‘두 귀 불히’는 다음에 오는 ‘뒷면 일자의’를 꾸미는 형식이 될 수 있다. ㄴ의 예문에서도 마찬가지다. 앞의 처소 표현 명사구 ‘두 뒷다리 안시골 아리’가 뒤에 이어지는 처소 표현 명사구 ‘구본 오목흔 더’를 꾸며 처소 표현의 두 명사구가 하나의 ‘처소표현 명사구’를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문 ㄷ에서도 ‘동히’에 있는 ‘굴산의’로 볼 수도 있어 ‘동히 굴산의’를 곳을 뜻하는 하나의 명사구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곳 표현의 두 명사구가 같은 성질의 의미자질을 가지면서 수량이나 정도의 차이로 표현되어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해석은 어디까지나 현대어를 보는 입장이나 논리 위주의 견해일 수 있어 여기서는 처격 표지가 나타난 자료 그대로 보기로 한다.

- ㄱ. 대풍문혈은 두 귀 불히 뒷면 일자의 이시니(마경상:64b)
 ㄴ. 꼭디혈은 두 뒷다리 안시골 아리 구본 오목흔 더 이시니(마경상:60b)
 ㄷ. 비로소 두 놓이 동히 굴산의 이서(마경상:1a)

(6), [NP₃에 NP₃₃에 NP₁이 잇-]

이 구문은 (5)의 문형이 변형된 것이다.(6)의 문형은 곳 표시의 두 명사구 ‘네 굽 알애’와 ‘수천혈 우희’가 문장의 앞부분으로 이동되어 이 두 명사구를 강조한 것이다.

○. 네 굽 알애 수천혈 우희 굽우 이셔(마경하:103a)

(7) [NP₁이 NP₃에(때) NP₃₃에(곳) 잇-]

이 구문이 ‘잇-존재 구문들 가운데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형이다. 그러나 실제의 대화나 이야기에서는 청자가 이야기 내용 가운데에 ‘때’나 ‘곳’ 등의 상황을 알고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러한 실상을 화자도 알고있으며 청자가 알고있다고 화자가 전제한 내용은 생략된다. 물론 그러한 사실은 주어진 상황이나 이야기의 흐름에서 쉽게 인식될 수 있다.(7)의 문형은 특별히 대화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할 경우에만 쓰인다.

보편적으로 사물(=실체, 대상)이 존재하는 때는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지금도 그러한데, 당시 사람들은 ‘때’에 대한 인식을 뒤로하고 ‘곳’에 대한 인식을 앞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 일상적인 언어 의식 세계인 것으로 보인다.⁵⁾

ㄱ. 그 지아비 밤의 문받과 이셔 신을 삼고(동신열2:1b)

ㄴ. 예서 夏店 가기 당시롱 十里 싸히 이시니 가디 못히리다(노결상:41b)

ㄷ. (NP₁이) 寒食애 집의 이셔 또흔 可히 祭스홀 디니라(가례10:48b)

(8) [NP₃에(때) NP₁이 NP₃₃에(곳) 잇-]

이 문형은 구문(7)에서 변형된 것으로, 아래 예문에서 보여주는 봐와 같이 때를 나타내는 명사구 ‘처음애’가 앞으로 이동되어 그 ‘때’가 강조되어 표현된 문형이다.

○. 또 굽오더 처음애 내 이에 이셔 (권념:15b)

(9) [(NP₁이) NP₃에 NP₄로 잇-]

5) 인간의 언어와 세계에 관한 의식을 설명한 것으로는 박종갑(1996:176~179)이 있다.

이 구문은 주격이 생략되고 처격 명사구 ‘흔 밋 올히’와 상황이나 상태를 방편의 뜻으로 삼는 도구격⁶⁾ 명사구 ‘한가지로’가 차례로 연결되어 ‘잇-’동사구에 이끄리는 구문이다.

○. (.....이) 흔 밋 올히 한가지로 이쇼디(동신열3:79b)

(10) [NP₁이 NP₃에(곳) NP₄로(상태) NP₃₃에(곳) 잇-]
[NP₁이 NP₄로(방향) NP₃에(곳) NP₃₃에(곳) 잇-]

(10)의 예문 ㄱ, ㄴ은 주격명사구 ‘옥당혈’, ‘슬믹혈’을 주제화하여 각각 보조사 ‘-은’을 결합하였는데, 먼저 예문 ㄱ은 주격어 다음에 제1 처격 명사구 ‘입 안해’, 도구격 명사구 ‘하늘 차례로’, 제2 처격 명사구 ‘셋재 물리’가 차례로 ‘동사구’-잇’에 연결되어 있는 구문이며, 다음으로 예문 ㄴ은 주격어가 주제화된 명사어 다음에 ‘무릅 아리로’ 향격 명사구, ‘스지애’ 제1 처격 명사구, ‘힘얏싸 뒤히’ 제2 처격 명사구들이 차례로 동사구 ‘잇-’에 연결되어 있다. 이 두 예문을 같은 문형으로 분류한 것은 향격과 구격의 표지가 동일하며 예문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ㄱ. 옥당혈은 입 안히 하늘 차례로 셋재 물리 이시니(마경상:65b)
ㄴ. 슬믹혈은 무릅 아리로 스지애 힘얏싸 뒤히 이시니(마경상:61a)

(11) [NP₁이 NP₁₁이 잇-]

ㄱ. 내 흔 벗이 이서 떠더오매(노결상:1b)
ㄴ. 婦人이 연故 이서 中門의 나갈 제어든(가례2:16b)
ㄷ. 내 남진도 잇고 죽석도 이시니(동신열7:89b)
ㄹ. 내게 뽀 돈이 이시니 내 ㅅ올아라 너를 주마(박통중:2a)
ㅁ. 쇼시호당은 시병괴운이 반은 밧고 잇고 반은 안히 이서
더우락 치우락 하며 혹 때로 열호는 중을 고티느니라.(벽운:5b)

예문 ㄹ을 제외한 (11)의 예문들은 모두 이중 주격문이다. 예문 ㄱ, ㄴ, ㄷ의 제1 주어

6) 도구격이란 동사가 표시하는 행위나 상태에 있어서 원인적으로 내포된 無生的인 힘이나 대상의 격이다(Fillmore 1968:24). 이 도구격은 기구격(tool case), 재료격(material case), 기관격(body part case), 역격(natural force case)의 4 개의 하위격으로 분류될 수 있다(Nilsen 1973:53 참조).를 비롯하여 근대국어의 도구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홍윤표(1994 : 502~515)를 보기 바람.

명사구 ‘내’, ‘婦人이’, ‘내’의 주격‘-이’는 예문 ㄹ의 첫째 명사구 ‘내게’의 ‘-게’처럼 유정 명사구 ‘곳’의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처격이 되기도 하다. 이는 화자의 의식이 어느 쪽에 더 강하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첫째 논항인 유정 명사구를 처격으로 해석하면 예문 ㄱ, ㄴ, ㄷ, ㄹ은 모두 소유 구문으로 규정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첫째 논항과 둘째 논항을 각각 주격으로 해석하면 이들은 존재구문으로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⁷⁾. 예문 ㄱ은 안음문이다. 안김문의 제1 주격어 ‘시명곡운이’가 제2 주격어 ‘반은’을 소유한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12) [NP₁이 NP₁₁이 NP₃에(곳) 이시-]

○. 원월이 혼자 거터 이서 도적의게 인결한대 도적이 다 주기다(동신총1:82b)

(13) [NP₁이 NP₃에(곳) NP₁₁이 이시-]

ㄱ. 내 다룬 고더 저기 긴흔 일이 이서(박통중:51b)

ㄴ. 서울 모습일 이서 가난다(노결상:7b)

(14) [NP₃에 NP₁이 NP₁₁이 이시-]

○. 古者에 小宗이 너히 이서(가례도:20b)

예문(12)은 이중 주격어와 처격어로 이루어진 구문으로 처격 명사구가 제2명사구의 뒤에 자리한 것이며, 예문(13)은 제1주격과 제2주격어 사이에 처격명사구가 자리한 것이다. 그리고 예문(14)은 처격 명사구가 구문의 앞자리로 이동되어 강조된 것이다. 예문(13)ㄴ은 소유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그 외의 예문은 모두 존재 구문이다.

2.2 ‘계시-’구문

‘계시-’는 ‘잇-’의 높임 형태이다. 중세에 ‘잇-’의 높임 형태로 쓰인 ‘겨시-’가 근대어에 와서 ‘계시-’로 변형된 것이며, 그 발생은 [-시-]의 역행동화에 의해서 [겨]가 [계]로 바

7) 15세기 존재구문과 소유구문에 대하여는 이현희(1994:145~170)를, 16세기 존재·소유동사구문에 대하여는 한재영(1996:151~181)을 참조.

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17세기 문헌어에서는 아직도 ‘겨시-’가 흔히 쓰였지만 소수의 ‘계시-’구문이 이 시기에 처음으로 나타나 현대어로 오면서 일반화되었으니 이 형태(계시-)를 대표형으로 표기한다.

(1) [NP₁이 계시-]

이들은 존재의 주체인 ‘舅姑’와 ‘太上皇’를 대접하거나 높이는 구문으로, 존재의 주체(대상)를 의미하는 논항만 있고 그 주체가 존재하는 장소는 화자에게 의식 되지 않아 표현되지 않은 문형이다. 한마디로 이 구문들은 [NP₁이 잇-]의 존대 문형이다.

ㄱ. 父母 舅姑ㅣ 겨신 더 밋와 이셔(가례2:7b)

ㄴ. 太上皇 겨신더(역어상:8 b)

(2) [NP₁이 NP₃(예)(곳) 계시-]

ㄱ. 아바님이 예 겨시거든 주식이 난돌 어드려 가리오 흥고(동신효8:16b)

ㄴ. 부지 여귀 겨시니 첩비 혼자 어더 가리오(동신열6:27b)

ㄷ. 그 도라오매 疑심토틸 호른 어버이 데 겨신가 爲호미라(가례8:21a)

ㄹ. 政官은 어더 겨시온고(첩해초1:15b)

(3) [NP₃에 NP₁(이) 계시-]

ㄱ. 더답호야 곶오더 셔방의 부테 겨샤더 일후미 아미태시니(권념:22a)

ㄴ. 두려운 광명 가온더 여러 화한 부테 겨시며(권념:14a)

위의 예문 (2)ㄱ, ㄴ, ㄷ은 ‘예’, ‘여귀’, ‘데’ 등의 처격어를 갖춘 문형으로, 안 높임의 ‘잇-’구문에서 가장 흔하게 쓰인 [NP₁이 NP₃에 잇-] 문형에 대응하는 높임의 존재구문이다. 높임의 존재구문 가운데에서도 처격을 갖춘 위의 (2)예문과 같은 문형이 가장 많이 쓰였다. 예문(2)ㄷ은 주어가 주격화 되었고 예문(3)ㄱㄴ은 각각 처격 ‘셔방의’, ‘두려운 광명 가온더’의 명사구가 주격의 앞으로 이동되어 처격을 강조하도록 쓰인 문형이다.

(4) [NP₁이 NP₁₁이 계시-]

ㄱ. 닐은 父母ㅣ 병이 겨시거든(경문중:35a)

- ㄴ. 父母ㅣ 怒호시미 겨시거든(경민중:34b)
- ㄷ. 父母ㅣ 허물이 겨시거든(가례2:9b)
- ㄹ. 자네네 ㅁㅅ신 분 五六人만 계시과다(첩해초9:17a)
- ㅁ. 서르 時分과 갑시 양도 見슴도계실 써시니(첩해초6:15a)

예문 (4)은 모두 높임 존재구문으로서 이중 주어 문장들이다. ㄹ ㅁ은 각각 ‘자네네 ㅁㅅ신 분’과 ‘서르’가 제1 주어이다. 여기서 제1주어가 모두 사람 명사구이나 예문 ㄱ, ㄷ만 소유 구문으로 해석될 수 있고 그 밖의 예문 ㄴ, ㄹ, ㅁ은 모두 존재 구문으로 쓰여졌다. 예문 ㄱ, ㄴ, ㄷ, ㄹ, ㅁ의 제2주격 명사구는 각각 ‘병이’, ‘怒호시미’, ‘허물이’, ‘五六人만’, ‘시분과 갑시 양도 見슴도’이다.

(5) [NP₁이 NP₆와 계시-]

- . 그러면 御使者는 뉘와 겨신고(첩해초5:1b)

예문(5)은 존재 구문에 공동격 명사구‘뉘와’가 쓰여있음을 보여 준다.

2.3 ‘없-’구문

‘없-’의 형태는 대부분, 뒤에 자음이 이어질 때 ‘ㅅ’이 묵음 되거나 동화된 형태로 표기되든지, 아니면 뒤에 매개모음을 포함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ㅅ’이 연음된 형태로 표기된다.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업-’이나 ‘업ㅅ-’로만 쓰임을 아래 예문에서 볼 수 있다.

- . 室이 업스며 房이 업거든(가례3:5b)
- . 쏜 난 후에 몸이 초면 불근 덤이 절로 업느니라.(두창하:69b)

‘없-’은 ①죽다[死]의 의미: (보기)나서 쏜 업고 업서서 쏜 나되(두창하:69a), 아비 업거늘 시묘호고 도석의 무덤의 오르고 (동신평8:32b), 소경대왕 업스심에 삼년을 거상 님고(동신평8:68b) ②소유[所有]의 대립적 의미: (보기) 업스니 섬기물 인느니 섬김ㄱ티 홀디니 (가례10:49b) ③관용적 의미: (보기)서르 獻호며 酬호야 爵을 수 업시 호며 이시니(가례10:29b), 어미 거상 니버서 올기날 때 업시 호야 여위여 썩만 썩더라(동신평6:81b), 혼 시죽도 썩 스이 업시 두루는 거시니(두창하:b), 자네 니르시는 바는 日本말을 비홀 더

업슨 양으로 기리시니(첩해초9:20b) ④存在의 대립적 의미 등으로 쓰였는데 ①,③은 존재 구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하고, 여기서는 ②,④의 의미자질을 갖는 구문만 검토하기로 한다.

(1) [NP₁이 없-]

- ㄱ. 室이 업스며 房이 업거든(가례3:5b)
- ㄴ. 스승이 업거든 敢히 망녕도이 움즈기디 말며(여훈상:33b)
- ㄷ. 이리 니르시니 홀 일도 업거는 업거니와(첩해초5:30a)
- ㄹ. 그대도록 니흠도 업고 해흠도 업다.(無甚利害)(어록중:38b)
- ㅁ. 田禾에 물 끼여 흔 불휘도 업고(박통상:10a)
- ㅂ. 벼슬업 업거든 그 字를 써 굴오디 某君 某甫ㅣ라 흐라(가례7:27a)
- ㅅ. 벼슬곳 업거든 그 生時에 칭흐던 바돌 조차 흐라(가례5:21b)

예문(1)에서 본 바와 같이 ‘없-’구문은 ‘있-’구문과는 달리 존재의 처소를 의식하지 않고 존재의 대상만을 의식하고 표현된 문장이 아주 흔하게 나타난다. 이는 존재동사 ‘있-’의 의미가 존재의 장소를 대부분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에 대립적으로 ‘없-’구문은 존재의 주체가 말의 뜻 그대로 존재하지 않으니 그 대상(존재의 주체)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를, 특별히 의식해야 할 경우가 아니면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ㄷ, ㄹ, ㅁ문장은 모두 주격어자리에 특수조사 ‘-도’가 결합되었다. 특히 예문 ㅁ은 접속 복합문으로 선행절 ‘田禾에 물 끼여’에서 존재주체인 ‘田禾’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후행절인 ‘(田禾ㅣ)흔 불휘도 업고’는 이중 주격어 구문으로서 제1주격어(田禾ㅣ)가 생략되어도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없게 표현되었다. 예문 ㅂ, ㅅ은 주격어 자리에 강조 표지인 ‘-곳/-곳이’ 결합되어 쓰이었다.

(2) [NP₃에 NP₁이 없-]

- ㄱ. 만일 喪側에 子孫이 업거든(가례7:12b)
- ㄴ. 희산 후에 젓 업거든 나게 혼넵(태산:61a)
- ㄷ. 一百 닛 돈에 혼 닛 돈이 업서도 꼭디 아니흐리라.(박통중:56b)
- ㄹ. 네며 서심에 정신이 업느니 (마경상:112b)
- ㅁ. 어미 오래 병하야 일빅 가지 약애 효험 업거눌(동신효4:50b)
- ㅂ. 집의 아르란 일이 업스면 너를 상흐고(박통중:25a)
- ㅅ. 우리 다 가면 이 房의 사롬 업스니(노결상:30a)
- ㅇ. 내게 또 노프니 업스니(박통중:2a)

위의 (2)예문에서는 제1 명사구가 모두 다 처격 명사구이다. ‘ㄱ 喪側에, ㄴ 訃告 후에, ㄷ 一百兩 돈에, ㄹ 네며 서심에, ㅁ 일찍 가지 약에, ㅂ 집의, ㅅ 房의, ㅇ 내제’와 같이 처격 명사구가 주격명사구와 함께 쓰이면 처격명사구는 항상 문의 맨 앞에 나타나며 주격 명사구가 문두에 나타나 쓰이는 경우는 없다. 이는 ‘있-’구문이 [NP₁이 NP₃에 있-] 형식을 취하는 것과는 대조를 이루며, 의미상으로 ‘있-’구문은 실체가 존재하는 시간, 공간, 상황 등을 표현하는 명사구가 필수적인 것이 일반적이나, ‘없-’구문은 [NP₁이 없-] 문형이나 [NP₃에 NP₁이 없-]문형이 보편적으로 쓰였다. 특별히 인식할 필요성이 있는 논항만이 표현해 놓은 것이다. 존재의 대상이 ‘없다’는데 여러 말을 덧붙일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있-’과 ‘없-’의 의미상의 차이가 구문 표현에도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앞의 2.3 (1)의 문형과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3) [NP₁이 NP₁₁이 없-]

- ㄱ. 둘이 다 손해한 디 업거니와(태산:31b)
- ㄴ. 小學 글이 傳호미 업거늘(여혼상:26a)
- ㄷ. 형역의 신장은 증취 업거니와(두창상:52a)
- ㄹ. 겨집이 지아비 업스면 몸이 남재 업다 호느니(박통증:17b)

(4) [NP₁이 NP₃에 NP₁₁이 없-]

- . 男子 나적 연故 업거든(가례2:16a)

(5) [NP₃에 NP₁이 NP₁₁이 없-]

- ㄱ. 骨肉의 지극히 親한이 兄弟 ㄹ트니 업거늘(경민중:4b)
- ㄴ. 처음 열흘제 토코 츠치미 해 업거니와(두창상:65a)
- ㄷ. 幽明 스이예 둘 다 혼이 업거니와(가례9:33a)

위의 예문 (3)은 이중주어 구문이고, (4)는 (3)에 패를 나타내는 처격의 문구성 성분 ‘나적’이 표현되고 있는 문형으로 이러한 문형은 잘 나타나지 않으며, 대신 문형 (5)처럼 처격 성분이 문두로 나오고 주격 명사구가 그 뒤에 이어지는 형태가 많이 쓰이었는데 이러한 현상도 앞의 예문 (1) (2)와 마찬가지로 ‘없-’이 ‘있-’과 같은 존재구문이나 ‘없-’은

‘있-’과는 의미상으로 대립적인 면을 가지고 있음을 구문형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4)와 같은 예문은 (4)예문 하나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찾아 볼 수 없다.

(6) [NP₁이 NP₁₁이 NP₁₁₁이 없-]

○. 동거 계부 | 부즌 다 대공이 상친이 업거든.(가례도:15a)

예문(6)은 삼중주격어 구문이다.‘동거 계부 부자 | 다’가 제1 주격어, ‘대공이’는 제2 주격어, ‘상친이’는 제3 주격어이다.

2.4 ‘살-’구문

이 ‘살-’구문은 ‘生’, ‘活’, ‘居’의 의미로 쓰인다.

(1) " 이롤 머그면 주거니는 나고 사니는 편안호니라.(태산:35b)
 논이 그 범을 터 주기니 지아비 사니라(동신열1:82b)
 어미 죽시 다시 사니라(동신효8:59b) "

와 같은 예문에서는 ‘살다’가 ‘生’의 의미를 가지며 완전자동사로 쓰이게 된다. 그래서 [NP₁이 살-]문형으로 나타난다. 또한

(2) "아비 상스에 시묘 사니(동신효8:13b)
 부모 위호야 여섯히 시묘 사더라.(동신효:8b)"

의 예문에서는 ‘살다’가 ‘活’의 의미를 가져 [NP₁이 NP₂를 살-]의 문형을 이룬다. 위의 보기 (2)에서 ‘시묘’가 ‘NP₂을’에 해당한다. 존재의 의미 특성을 갖는 문장 구조와는 거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여기서는 존재구문에 포함되는 ‘居’의 의미자질을 갖는 구문만 검토해 보기로 한다.

(3) [NP₁이 살-]

ㄱ. 남진이 만일의 면티 못하면 첩이 었디 홀로 살리오(동신열6:66b)
 ㄴ. 두 분곳 아니시면 이 몸이 사라 실가(경민중:38a)
 ㄷ. 父母 | 사라신 적의 家法과 名聲이 도호며(노걸하:43b)

(3)의 예문들은 앞에서 다룬, ‘生’의 의미자질을 갖는 구문과 문구조면에서 동일하다. 이러한 사실은 화자가 단지 거처(=존재)하는 대상(=주체)만을 의식한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4) [NP₁이 NP₃에 살-]

- ㄱ. 슈문데 후이 비록 왕궁에 사나(권념:22a)
- ㄴ. 형데 혼더 살며 그 어미를 밋서(동신효8:10b)
- ㄷ. 네 遼東 잣 안 어늬 마춤서 사는다(노결상:43b)
- ㄹ. 小人이 遼東 잣 안해서 사노니(노결상:43b)
- ㅁ. (NP₁이) 겨집의 집의서 사다(贅居)(역어상41:b)
- ㅂ. 내 平郎門 ㅅ의 이서 사노라(박통상:12a)
- ㅅ. 郎中아 네 어디 이서 사는다(박통상:11b)
- ㅇ. 아비와 어미 다 여든나마 사니라(동신효7:73b)
- ㅈ. (NP₁이) 나히 아흔 다스시도록 사니라(동신효:2b)

위의 예문 ㄱ, ㄴ은 처격어 ‘왕궁에’ ‘혼더’를 갖는 구문이며, 예문 ㄷ, ㄹ, ㅁ은 명사구 ‘遼東 잣 안 어늬 마춤서’, ‘遼東 잣 안해서’, ‘겨집의 집의서’가 각각 처소와 시원의 격자질을 통합적으로 가지며 격표지도 그러한 형태인 ‘-에서’⁸⁾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과정이 예문 ㅂ, ㅅ에 나타나 있다. 이 구문들은 처격어 ‘ㅅ의’와 ‘어디’ 뒤에 다시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서술어에서 격조사의 기능으로 바뀌는 과정에 있는 ‘이서’가 이어진 것이다. 시원격 조사 ‘-서’의 발생 초기 형태인 것으로 보이며 앞의 명사항 처격과 뒤의 서술항 시원격(‘이서’서술어가 조사‘-서’의 기능으로 바뀌는 상태로 본 것임)이 통합된(-의/의 이서) 형태인 ‘-에서’(현대어: -에서)가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예문 ㅇ, ㅈ은 처격 자리에 시간적인 위치나 정도를 표현하는 특수조사 ‘-나마’와 ‘-도록’이 쓰여있다. .

2.5 ‘머물-’구문

‘머물-’은 머모로다, 머무로다 머물다, 머무르다, 머므로다, 머물다 등의 이 형태가 쓰이었으며, 그 의미는 현대어 ‘머무르다(留)’이다. 이 구문은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구분된다. 그 하나는 아래 예문 (1) (2)에서처럼 문구성에서 대격어를 갖지 않는 것으로 존재

8) 이들 격표지들에 대한 형태론적 논의는 생략한다. 현대어 ‘에서’의 의미자질을 갖는 격표지 ‘-서 -에서 -의서’는 대표형 ‘-에서’로 표기한다.

구문에 해당된다. 그러나 예문 (3) (4)은 대격성분을 갖추고 있어 타동성을 띤다. 이러한 현상은 ‘머물-’구문이 자동성과 타동성 둘 다를 가진 동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존재구문에 해당되는 것은 아래의 (1), (2) 예문뿐이다.

(1) [NP₁이 머물-]

- ㄱ. 흥나 머무러 房 보라하고(노걸상:30a)
- ㄴ. 아해도 쏘 늑고 병드러 머므르고져 흥거늘(동신총1:23b)
- ㄷ. 다만 복성화 배만 머므러 두고 나와 師傅드려 닐렀더니(박통하:21b)

(2) [NP₁이 NP₃에 머물-]

- ㄱ. 보니 중 불 다야샤와 해디와 담순이 부쳐 겨퓌 머므러(권념:15a)
- ㄴ. (NP1이) 창존에 머므러 능히 운화티 못하야(마경상:111b)
- ㄷ. 그 경뉴로 히여곰 갠가운 디경의 머므러시라 하니 듣디 이니타(동신총1:54b)

(3) [NP₁이 NP₃에 NP₂를 머물-]

- . 영이는 뽕와 성에 드러가 사하늘 머므러 휴선히여(동신총6:59b)

(4) [NP₁이 NP₃에(시간) NP₃에(곳) NP₂을 머물-]

- . 小人이 어제 貴宅에 혼 拜貼을 머므렀더니 보신가(박통상:52a)

III. 결 론

지금까지, 우리는 17세기 국어 구문 연구의 일환으로 존재구문을 검토해 보았다. 존재구문이란 존재 동사인 ‘잇-', ‘없-', ‘계시-', ‘살-', ‘머물-' 등이 이끄는 구문들이다. 그래서 이 개별 존재구문들이 구성하고 있는 명사항의 수와 순서 그리고 격에 따라 구문을 정리하여 17세기 존재구문의 유형으로 제시한다.

이중주격 구문에서는 소유구문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는 존재 주체에 대한 화자의 의식 작용의 강약에 따른 의미 해석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구문의 특성으로

볼 때 존재 구문과 동일하므로 달리 분류하지 않는다.

그리고 ‘없-’구문은 ‘잇-’구문과, 존재구문의 전체 범위에서는 그 유형이 같지만, 그 의미적인 대립에 어울리게 구문 구성이나 구문유형에 따른 쓰임의 빈도에 있어서 대조적으로 나타난다.

이상 존재구문의 유형은 아래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6 가지이다.

3.1 ‘잇-’구문 유형

- (1) [NP₁이 잇-]
- (2) [NP₁이 NP₃에 잇-]
- (3) [NP₃에 NP₁이 잇-]
- (4) [NP₁이 NP₃에(곳) NP₃₃에(곳) 잇-]
- (5) [NP₃에(곳) NP₃₃에(곳) NP₁이 잇-]
- (6) [NP₁이 NP₃에(때) NP₃₃에(곳) 잇-]
- (7) [NP₃에(때) NP₁이 NP₃₃에(곳) 잇-]
- (8) [NP₁이 NP₃에(곳) NP₄로(방법) 잇-]
- (9) [NP₁이 NP₃에(곳) NP₄로(상태) NP₃₃에(곳) 잇-]
- (10) [NP₁이 NP₄로(방향) NP₃에(곳) NP₃₃에(곳) 잇-]
- (11) [NP₁이 NP₁₁이 잇-]
- (12) [NP₁이 NP₁₁이 NP₃에(곳) 잇-]
- (13) [NP₁이 NP₃에(곳) NP₁₁이 잇-]
- (14) [NP₃에 NP₁이 NP₁₁이 잇-]

3.2 ‘계시-’, ‘없-’, ‘살-’, ‘머물-’구문의 유형

- (1) [NP₁이 계시-]
- (2) [NP₁이 NP₃에 계시-]
- (3) [NP₃에 NP₁이 계시-]
- (11) [NP₁이 NP₁₁이 계시-]
- (15) [NP₁이 NP₆와 계시-]
- (1) [NP₁이 없-]
- (3) [NP₃에 NP₁이 없-]
- (11) [NP₁이 NP₁₁이 없-]
- (13) [NP₁이 NP₃에 NP₁₁이 없-]
- (14) [NP₃에 NP₁이 NP₁₁이 없-]
- (16) [NP₁이 NP₁₁이 NP₁₁₁이 없-]
- (1) [NP₁이 살-]
- (2) [NP₁이 NP₃에 살-]
- (1) [NP₁이 머물-]
- (2) [NP₁이 NP₃에 머물-]

참 고 문 헌

- 남기심(1993) 국어 조사의 용법, 서광학술자료사.
- 박양규(1975) 소유와 소재, 국어학 3.
- 박종갑(1996) 토론식 강의를 위한 국어의미론, 박이정.
- 서정수(1991) “풀이말 ‘있/계시(다)’에 관하여”, 국어의 이해와 인식, 한국문화사.
- 성광수(1979) 國語助辭의 研究, 螢雪出版社.
-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 양동휘(1995) 수정문법론, 한국문화사.
- 윤만근(1996) 생성통사론, 한국문화사.
- 이승녕(1976) “15世紀 國語의 變形語 ‘있다, 시다’의 발달에 대하여” 國語學 4.
- 이승욱(1986) “存在動詞 ‘Ø시-’의 辨疑”, 國語學新研究, 塔出版社.
- 이현희(1991ㄷ) “국어문법사 기술에 있어서의 몇 가지문제”.
구어사 논의에 있어서의 몇 가지 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연구실.
- 한재영(1996) 十六世紀 國語構文의 研究, 신구문화사.
- 허웅(1983) 국어학, 샘문화사.
- 홍운표(1994) 近代國語 研究(1), 태학사.
- 홍재성외(1997)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 두산동아.